

한국과 일본의 지역사회간호 연구 동향 고찰

유호신¹ · 다나카 미카² · 아리따 쿠미² · 조정현³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¹, 박사과정³, 일본 후쿠오카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²

A Review of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in Korea and Japan

Ryu, Hosihn¹ · Tanaka, Mika² · Arita, Kumi² · Cho, Jeonghyun³

¹Professor, ³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Korea,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Faculty of Medicine, Fukuoka University, Japa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research trends for community health nursing between Korea and Japan. **Methods:** Comparison was made in terms of research design, data collection and sampling method, and key concepts from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by literature review. We analyzed original articles from representative Journals covering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from 2004 to 2008. **Results:** We found that research design was quite differ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Quantitative research design was dominant in Korea, while qual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designs were used equally in Japan. In particular, outcome research was found only in Korean papers. **Conclusion:** Based on the comparison,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related to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research concepts and methods observed in each country. It is suggested that future collaboration should be undertaken especially to improve the diversity of research design and method. More diverse research designs should be used in both countries. Particularly in today's aged society, evidence-based research and outcome research are needed for community health nursing in both countries.

Key Words: Community health nursing, Trends, Review, Korea, Japa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07년 11월, 한국과 일본의 지역사회간호학회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 이래, 매 2년을 주기로 양국간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지역사회간호학회 공동으로 처음 시도된 국제학술교류에서는 양국 공동 관심사로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사회간호의 비전과 전망'에 대한 주제강연 (Kanagawa, 2007; Kim, 2007)과, 지역사회간호사업 (Lee, 2007; Okamoto, 2007) 및 가정, 방문간호사업 (Ryu, 2007; Shimanouchi, 2007)에 대한 발제

강연이 있었다. 연이어 산업간호, 학교간호, 건강증진 및 노인건강 분야 등 지역사회간호 관련 세부 주제에 대한 분과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제 및 발제 강연에 채택된 내용 외에 산업간호나 학교간호 등 세부 전공분야별로는 지역사회간호 실무나 연구 분야에 있어 양국 모두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양국 모두 지역보건간호 분야나 가정, 방문간호 분야는 지역사회간호의 세부전공 영역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나, 산업간호나 학교간호 등은 서로 다른 양상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역사회간호연구는 실무 현장은 물론 간호교육 제도를 개발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간호연구 동

주요어: 지역사회간호, 연구 동향, 문헌조사, 한국, 일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Ryu, Hosihn,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126-1, 5ga,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075, Korea, Tel: 82-2-3290-4917, Fax: 82-2-927-4676, E-mail: hosihn@korea.ac.kr

투고일 2010년 9월 20일 / 수정일 2010년 12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17일

향을 파악하는 것은 앞서 경험한 좋은 선례 혹은 부족한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간호 교육 제도나 실무 혹은 연구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역사회간호 분야에서는 일본의 앞선 경험이나 노하우 또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과 효율적인 정책 활용 등 상호 지역사회간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할 때 그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의 간호는 각국의 강점과 약점이 매우 상이하다. 즉, 간호 교육 제도나 정책 분야가 더 강할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의 간호와 실무 분야가 더 강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의 간호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발전을 위한 윈윈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대국의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관련 연구 분야의 구체적인 정보가 매우 중요함에도 지금까지 관련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보고나 참고문헌 등 상대국의 정보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비록 초기단계의 시도에 불과하지만, 양국의 지역사회간호 관련 연구 결과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발전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간호 관련 전문학술지로서 심사과정에서 통과되어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즉 원저(original article)만을 선택하여 한국과 일본의 지역사회간호연구 동향을 고찰하여 지역사회간호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전공 영역별 국제학술교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 한국과 일본의 지역사회간호연구 동향을 고찰한다.
- 한국과 일본의 지역사회간호연구의 주개념을 비교한다.
- 한국과 일본의 지역사회간호연구방법을 비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지역사회간호 학술지에 보건간호, 가족간호(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보건 포함), 산업간호, 학교간호,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간호를 주 연구 개념으

로 하여 출판된 지역사회간호 연구의 주제와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동향을 고찰한 문헌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간호학자들이 운영주체가 되어 발간되는 학술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택하여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일본의 지역사회간호학회지는 한국의 지역사회간호학회지에 비해 약 10여 년 이후인 1998년에 창간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분석에서 제시한 총량적 논문 수의 비교는 지난 10년 동안 출판된 연구논문(원저)수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발간 초기에는 원저의 편수가 워낙 적어 연구설계 등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은 양국 모두 최근 5년간 출판된 원저만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분석에 포함된 학술지는 한국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산업간호학회지, 한국가정간호학회지,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 학술지인 대한간호학회지 등 간호계 대표학회지 5개를 선정하였다. 일본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일본재택케어학회지, 일본가족간호학회지, 일본사회재해간호학회지, 일본간호복지학회지, 그리고 한국의 대한간호학회지와 유사한 일본간호과학회지와 일본간호연구학회지 등 간호계 대표학회지 7개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선정된 근거는 일본가족간호학회지는 한국가정간호학회지와 유사하며 일본 사회재해간호학회지는 한국의 산업간호학회지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연구팀 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본 분석에 활용한 원저는 해당 학회지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다운받아 사용하였다.

3. 분석기준 및 방법

본 분석에서는 지역사회간호연구의 주개념인 보건간호, 가족간호(가정간호와 방문간호, 방문보건 포함), 산업간호, 학교간호,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간호 등 5개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4개의 주개념 이외에 기타 지역사회간호 개념 모두를 포함시킨 이유는 본 연구는 지역사회간호학자들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건강증진과 노인간호 등 본 연구 분석에 선정된 학술지에 발표된 모든 원저를 포함시켰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첨언하고 싶은 내용은, 한국의 경우 발표

된 논문 대부분이 논문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통과한 원저만을 수록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의 간호학술지는 다양한 수준의 원고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수준의 원고에 대한 설명으로 일본의 간호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Ichushi database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논문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통과한 원저(原著論文, original article) 외에도 학회주관 학술회의 등의 회의록(會議錄, proceedings), 그림해설(圖說, atlas), 강의(講義, lecture), 해설(解説, commentary), 총설(總說, review), 일반 좌담회(一般座談會, round-table discussion), Q&A,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letter to editor), 그리고 임상사례연구(症例検討會, case study) 등 다양한 형식과 수준의 원고를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방법을 비교하기 위한 분류 기준은 Burns와 Grove (2005)의 간호연구방법 분류 중에서 간호연구의 과학적 지식체의 주 개발단계별로 구분한 기술적 차원의 연구(description level), 설명적 차원의 연구(explanation level), 예측적 차원의 연구(prediction level) 그리고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조절가능한 차원의 연구(control level) 분류기준을 적용하였고, 분석결과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양국 모두 지역사회간호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므로, 본 분석 자료에는 지역사회간호학자의 연구 범주로 분류하기 모호한 논문과 학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은 물론 일본의 지역사회간호 연구 활동 모두 보건계열이나 의약계열 학회지뿐만 아니라 영문판 국제 학술지 등에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결과 해석 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1. 논문 게재 현황

우선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간호연구 관련 논문 수를 단순하게 출판된 논문 수만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즉,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 학자들의 논문 수는 총 2,291편이었고 일본의 경우는 총 843편으로 출판된 논문의 양적인 편 수만을 단순 비교한다면 단연 한국

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결과는 지역사회간호연구의 주 개념인 지역사회간호, 보건간호, 가족간호(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보건), 산업간호, 그리고 학교간호 등 5개의 세부 전공 영역만을 선별한 것으로서, 한국의 경우 대한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산업간호학회지, 한국가정간호학회지 등 총 5종의 관련 학회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본간호과학회지와 일본간호연구학회지, 그리고 지역사회간호학회지와 일본재택케어학회지, 일본가족간호학회지, 일본사회재해간호학회지, 일본간호복지학회지 등을 분석 제시하였다.

2. 연구의 주개념

최근 5년 동안 발표된 지역사회간호연구의 세부 전공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국 모두 연도별 변화 추세는 엇 볼 수 없었다. 다만, 한국은 건강증진이나 노인건강 등 기타 지역사회간호연구 개념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28.4%), 그 다음 순으로 학교간호, 보건간호, 산업간호, 가족간호(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보건 포함) 등의 순으로 많았으나, 일본은 보건간호가 3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기타 지역사회간호, 가족간호(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보건 포함), 산업간호, 학교간호 순으로 나타나 양국의 지역사회간호연구 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의 지역사회간호연구에서는 학교간호 연구가 한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점이었다. 참고로, 당초 본 연구의 세부 전공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개념 분석은 MeSH (www.nlm.nih.gov/mesh/MBrowser.html)에 등재된 용어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적지 않은 연구결과보고에서 MeSH에 등재된 용어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서 부득이 원저자가 원저에 명시한 주요어(key word)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설계 방법에 있어서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국 간 확연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즉, 한국의 지역사회간호 연구에서는 양적인 연구설계 방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일본의 지역사회간호 연구에는 질적 연구설계 방법으로 제시된 연구보고가 많았다. 그러나 일본의 원저

Table 1. A Comparison the Number of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between Korea and Japan for 10 Years from Related Journals

Source year	Korea						Japan							
	JKAN	JKACHN	JKAPHN	KJOHN	JKAHHN	Total	JJANS	JJSNR	JJACHN	JJAHC	JJARFN	JJSDN	JJSNS	Total
1999	120	40	25	17	7	209	13	3	14	11	-	-	-	41
2000	126	43	35	16	7	227	11	13	11	11	-	-	-	46
2001	96	70	32	13	12	223	14	12	27	16	4	8	-	81
2002	93	50	35	13	12	203	15	16	26	15	5	6	3	86
2003	120	66	27	16	15	244	8	13	18	16	7	5	21	88
2004	148	57	29	12	6	252	22	14	23	13	8	3	26	109
2005	150	47	31	14	12	254	27	18	19	23	6	3	4	100
2006	133	50	17	14	6	220	19	22	22	9	4	10	7	93
2007	126	60	22	25	11	244	19	22	26	18	11	6	7	109
2008	96	61	21	25	12	215	17	16	23	12	14	4	4	90
Total	1,208	544	274	165	100	2,291	165	149	209	144	59	45	72	843
%	52.7	23.7	12.0	7.2	4.4	100.0	19.6	17.7	24.8	17.1	7.0	5.3	8.5	100.0

JKAN=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ACHN=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JKAPHN=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KJOHN=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JKAHHN=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JJANS=Journal of Jap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JJSNR=Journal of Japan Society of Nursing Research; JJACHN= Journal of Jap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JJAHC=Journal of Japan Academy of Home Care; JJARFN=Journal of Japanese Association for Research in Family Nursing; JJSDN=Journal of Japan Society of Disaster Nursing; JJSNS=Journal of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Nursing and Social Work.

Table 2. A Comparison of the Major Key Concept for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between Korea and Japan for 5 Years

Source year	Korea						Japan					
	PHN	IHN	SHN	FHN	OCHN	Total	PHN	IHN	SHN	FHN	OCHN	Total
2004	14	6	7	8	22	57	9	2	0	9	3	23
2005	2	10	11	6	18	47	6	2	0	5	6	19
2006	10	8	15	1	16	50	7	1	0	3	11	22
2007	10	8	21	3	18	60	13	1	0	4	8	26
2008	8	3	19	4	27	61	9	3	2	3	6	23
Total	44	35	73	22	101	275	44	9	2	24	34	113
%	16.0	12.7	26.5	8.0	36.8	100.0	38.9	8.0	1.8	21.2	30.1	100.0

PHN=public health nursing; IHN=industrial health nursing; SHN=school health nursing; FHN=family health nursing; OCHN=others in community health nursing.

에 제시된 연구설계 방법은 저자가 밝힌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질적 연구설계 방법이라기보다는 설명 혹은 기술적인 차원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연구설계 수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양적 연구설계 방법에 있어서, 한국은 예측 수준(predictive level)의 연구설계 방법이 25.1%로 가

장 많았고, 설명적 차원의 연구(explanatory level)가 23.3% 수준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유사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study) 방법을 활용한 조절 즉, 처방(control 혹은 prescriptive) 수준의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도 22.2% 수준이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설명적

수준과 예측 수준의 연구가 각각 23.0%와 14.2%로 타 연구 설계 방법에 비해 비교적 많았고 간호중재연구의 효과 검증 등을 수행한 처방 수준의 연구설계를 적용한 연구보고는 거의 없었다.

자료수집방법에 있어서는,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조사연구가 5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일본은 기술적 차원의 내용 분석을 수행한 질적 연구방법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개별 면담이 35.4%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간호중재서비스에 대한 효과 측정을 위한 자료수집방법에 있어서도 한국은 21.5%로 비교적 많았던 반면에 일본은 5.3%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본추출방법에 있어서는, Table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국 모두(임의)편의추출방법을 가장 많이 수행하였으나(한국 85.1%, 일본 94.7%), 한국의 논문에서는 전수조사(6.9%)와 무작위추출방법(5.1%), 그리고 문헌분석연구

Table 3. A Comparison of the Specific Research Design for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between Korea and Japan for 5 Years

Research design		Korea	Japan
		n (%)	n (%)
Quantitative	Descriptive level	64 (23.3)	26 (23.0)
	Instrument development (including meta analysis)	4 (1.5)	5 (4.4)
	Secondary analysi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10 (3.6)	5 (4.4)
	Program development	8 (2.9)	0 (0.0)
	Correlative level	40 (14.5)	2 (1.8)
	Predictive level	69 (25.1)	16 (14.2)
	Quasi-experiment	61 (22.2)	5 (4.4)
Qualitative	Qualitative descriptive research	0 (0.0)	43 (38.1)
	Phenomenological research	5 (1.8)	0 (0.0)
	Grounded theory research	5 (1.8)	5 (4.4)
	Ethnographical research	1 (0.4)	3 (2.7)
	Historical research	0 (0.0)	1 (0.9)
	Q-method	2 (0.7)	0 (0.0)
	Others (including action research)	0 (0.0)	2 (1.8)
Outcome research		6 (2.2)	0 (0.0)
Total number		275 (100.0)	113 (100.0)

Table 4. A Comparison of the Data Collection Method for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between Korea and Japan for 5 years

Methods for data collection	Korea	Japan
	n (%)	n (%)
Nursing intervention	59 (21.5)	6 (5.3)
Questionnaire survey	159 (57.8)	6 (5.3)
Mail survey	9 (3.3)	32 (28.3)
Record analysis	6 (2.2)	3 (2.7)
Secondary (nursing bill etc.)	9 (3.3)	0 (0.0)
Personal in-depth interview	16 (5.8)	40 (35.4)
Focus group interview	0 (0.0)	1 (0.9)
Program development	6 (2.2)	0 (0.0)
Expert opinion	2 (0.7)	0 (0.0)
Others	7 (2.5)	19 (16.8)
Combination	2 (0.7)	6 (5.3)
Total	275 (100.0)	113 (100.0)

Table 5. A Comparison of Sampling Method and Size for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 between Korea and Japan for 5 years

Variables	Korea	Japan
	n (%)	n (%)
Sampling method		
Total sampling	19 (6.9)	0 (0.0)
Randomized sampling	14 (5.1)	0 (0.0)
Convenient sampling	234 (85.1)	107 (94.7)
Literature review	7 (2.5)	0 (0.0)
Others	1 (0.4)	6 (5.3)
Total	275 (100.0)	113 (100.0)
Sample size		
< 30	26 (9.5)	54 (47.8)
30~49	20 (7.3)	11 (9.7)
50~99	31 (11.3)	7 (6.2)
100~499	139 (50.5)	22 (19.5)
500~999	26 (9.5)	9 (8.0)
≥ 1,000	31 (11.3)	4 (3.5)
Others	2 (0.7)	6 (5.3)
Total	275 (100.0)	113 (100.0)

(2.5%) 등 다양한 표본추출방법을 수행한 데 비해 일본은 거의 대부분 편의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표본수에 있어서도 한국은 전수조사도 19건(6.9%) 정도 수행되었고 무작위 표본추출방법도 14건(5.1%)이 수행되었던 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한국의 경우 연구대상이 100~499명(50.5%)의 표본 수를 적용한 원저가 절반 정도 시행되었던 데 비해 일본은 30건 미만의 소규모 표본수에 의한 연구대상을 적용한 원저가 절반 정도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한국과 일본의 국제학술교류는 한국에서 개최한 2007년 국제 공동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가시화되었다. 지역사회간호의 국제학술교류는 노령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노력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양국 지역사회간호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은 비록 기초단계의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시도할 당시 저자는 적어도 일본의 지역사회간호연구와 한국의 지역사회간호연구를 비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구의 양적 혹은 질적인 측면으로 연구 성과물들이 균형을 이루거나 혹은 일본의 지역사회간호연구가 더 앞선 수준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보건지표의 수준이 한국에 비해 일본이 우수하기 때문에 적어도 보건간호분야의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보건간호 실무 분야에 비해 더 발전되었을 것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간호연구 측면에 있어서도 연구주제의 다양성이라던가 실무와 연구가 연계된 정책 개발 연구 혹은 연구설계 방법적 측면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역사회간호교육의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도 보건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간호사와는 달리 4년제 학제에서 1년 과정의 보건간호학을 더 이수하거나 3년제 학제를 졸업한 이후 4년제 간호학과에 편입하여 1년 과정의 보건간호사(일본에서는 보건사로 칭함) 교

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간호연구 개념의 다양성 측면에 있어서나 연구설계 등 연구방법 상에 있어서 우리보다 비교적 단순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지역사회간호 학자들의 학술활동 수준만이 아니라 일본 간호 연구의 전반에서 엿볼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4년제 학제가 1994년도에 총 30개에 불과한 간호교육기관이 불과 10여년 뒤인 2006년도엔 146개로 증가되었고, 최근에 이르러 4년제 간호교육기관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박사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수가 1990년도 초에는 2개교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40여 개소 이상으로 최근에 급증되고 있다는 점(Japanese Nursing Association [JNA], 2010)을 들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간호교육제도는 의과대학 혹은 보건(건강)대학 혹은 사회복지 관련 학과 등에 소속된 간호학과 체제의 운영 특성을 갖고 있어서,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간호교육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의과대학교수이거나 타 전공 교수요원들로 구성된 점 등이 일본의 간호연구의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우려를 갖게 해 주었다. 이러한 논지의 근거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전체 지역사회간호연구 중 절반 정도가 표본 수 30명 이하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질적 연구설계 방법에 있어서도 진정한 의미의 질적 연구설계 방법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례분석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8년 일본 지역사회간호학회지가 창간된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양적인 논문 수를 비교한 결과와 비교적 원저의 출판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최근 5년간의 연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일본의 연구 동향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간호학자들의 학술활동의 근간이 되는 학회지 활동에 있어서 한국은 한국간호과학회에서 출판하고 있는 대한간호학회지를 기반으로 8개 전공분야별 주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한국간호과학회와 동급의 수준에 해당되는 일본간호과학회지와 일본간호연구학회지로 나뉘어 발간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전공영역별로는 발달단계별(4종), 질병 및 신체기능별(6종), 구급도별(5종), 기능 및 영역별(16종) 및 대학기반학회(4종) 등 총 37개 학회가 각자의 특성과 목적을 갖는 학술 활동과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서 지역사회간호 학자들이 주로 관여하는 학술 모임을 파악한 결과, 한국과 같이 가장 주가 되는 일본지역사회간호학회와 그 외에 일본구급간호학회, 일본재해간호학회, 일본가죽간호학회, 일본재택케어학회, 일본간호복지학회 등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한국은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산업간호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등이 있다. 물론 지역사회간호학 영역의 학술분야는 간호학문 분야 중에서도 다학제 간 활동의 폭이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갖는 학문으로서, 한국만 해도 학교보건교육학회, 보건학협의회, 건강증진학회, 농촌 지역학회 등 보다 넓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보건위생학 등 보건계열과 의약계열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일본공중보건학회와 일본위생학회 등에 참여하여 의학자들과 공동으로 활동해 오다가 1998년에서야 비로서 단독으로 일본지역사회간호학회지를 발간하게 된 실정에서 다학제 간 참여를 활발하게 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8년 4월 통계에 의하면, 167개의 4년제 간호교육기관과 11개소의 전문간호교육과정(advanced course in Junior college), 그리고 27개소의 special training school 등 총 450여 개의 간호교육기관 중 205개의 간호교육기관에만 지역사회간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JNA, 2008), 대체적으로 지역사회간호 학자는 약 반 정도의 간호교육기관에서만 재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임상전공의 타 전공분야 간호학자들에 비해 지역사회간호 학자들의 수가 적어 학술활동의 양적인 면에서도 타 전공간호 분야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 지역사회간호연구 개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보건간호 영역으로서, 연구대상이 주로 보건간호사의 활동과 관련 된 특수성이나 보건간호사의 업무 능력 등에 관한 주제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일본의 사회적 요구의 변화로 인해 보건간호사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간호사의 다양한 활동을 타 직종과 제휴하는 기회가 증가되고 있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다. 타 직종과의 제휴에 대한 내용에는 보건간호사의 조정자 역할에 대한 업무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Asahara, 2010; Murashima, Matsumoto, & Arata, 2010).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은 한국에 비해 학교간호 연구가 매우 저조한 편이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한국이 일본의 간호계에 비해 보건교사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활발한 양상과 맞물린 현상으로 추측

된다. 한국의 학교간호 연구분야는 본 분석에서 활용한 주학회지외에도 학제 간 팀웍으로 발간하고 있는 학교보건학회지에도 상당한 비중으로 학교간호 연구가 많이 수록되고 있으나 본 연구분석에서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비해 한국의 학교간호 연구 성과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학교간호 분야가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연구의 주개념은 MeSH에 등재된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양국 모두 적지 않은 연구결과에서 MeSH에 등재된 용어를 제시하고 있지 못해 부득이 원 저자가 명시한 주요어(key word)를 기준으로 분석한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많은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효과평가 연구나 중재 프로그램을 검증한 실험연구 등은 매우 적은 실정이었다. 일부 2008년부터 시작된 특정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특정 보건지도에 대한 효과평가 연구는 대규모이고 체계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은 분석단계에 있으며, 향후 다양한 연구설계 방법 등이 이루어져 실제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보건지도의 유효성이나 질 관리 방안 혹은 기여도 등에 대한 근거제시가 매우 필요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로 제시는 못 하였으나 2000년 이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고령자나 개호자와 관련된 연구주제가 많은 점도 엿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일본의 특수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Tsuji, 2007).

종합하면, 한국의 지역사회간호연구는 일본의 지역사회간호연구와 단순 비교한다면 다양한 방법의 연구설계와 다양한 주제 및 대규모 연구대상을 분석단위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연구개발의 기반이 되는 질적 연구설계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질적 연구의 생산이 거의 없다는 점은 지역사회간호연구의 대상 혹은 사업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탐색적 차원의 연구가 부재하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반해 일본의 지역사회간호연구는 다양한 연구설계 방법의 활용이 부족하고 질적 연구설계 방법에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질적 연구설계 방법을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연구는 비록 소규모 연구대상자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러한 소규모 대상자에 대한 탐색적 연구결과는 후일 양적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지난 10년 동안 출판된 원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논문 편수만의 양적인 단순 비교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한국의 지역사회간호연구가 일본에 비해 많았으며, 이는 지역사회간호 관련 학자들의 양적인 수와 비교한다면 한국의 지역사회간호 관련 학회지에 출판된 연구 성과가 일본에 비해 매우 활발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전체 지역사회간호 학자들의 논문 성과를 비교 고찰한 결과가 아니므로 단정적인 결론은 유보하고자 한다. 다만, 지난 5년 동안의 연구 주제 및 연구설계 방법 등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한국의 지역사회간호연구의 주 내용은 건강증진과 노인간호 등 기타 지역사회기반의 간호와 학교간호 등 비교적 고르게 수행된 반면에 일본은 보건의간호가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한국의 지역사회간호연구는 양적인 연구설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설명 혹은 기술적인 차원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연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양국 간 연구의 특징적 차이를 엿 볼 수 있었다. 이상의 고찰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양국 모두 다양한 연구설계 방법을 적용한 연구수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언하면, 한국은 지역사회간호연구의 대상이 되는 특성에 대한 본질적 차원의 규명을 제시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탐색수준의 연구 생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분석대상 30명 수준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전의 내용분석 연구에 기반한 다음 단계 수준의 다양한 연구설계 방법,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간호 관련 정책개발 연구나 간호중재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의 효과를 검증해 제시할 수 있는 처방 혹은 조절 수준의 연구 생산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국의 지역사회간호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은 향후 양국 지역사회간호연구의 국제 간 학술교류 시에나 혹은 개인 간 협력연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건의한다.

REFERENCES

- Asahara, K. (2010). National examination of the perspectives on public health nursing and education for public health nurse. *Japanese Journal of Public Health*, 57(10), 933-935.
- Burns, N., & Grove, S. K. (2005). *The practice of nursing research: Conduct, critique, & utilization* (5th ed.).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 Jap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Jap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Retrieved September 20, 2009, from <http://jachn.umin.jp/>
- Japan Academy of Home Care. *Journal of Japan Academy of Home Care*. Retrieved September 20, 2009, from <http://jahhc.umin.jp/>
- Jap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Journal of Japan Academy of Nursing Science*. Retrieved September 20, 2009, from <http://jans.umin.ac.jp/>
- Japanese Association for Research in Family Nursing. *Journal of Japanese Association for Research in Family Nursing*. Retrieved September 20, 2009, from <http://square.umin.ac.jp/>
- Japanese Nursing Association (2008). *Nursing Statistics*. Retrieved May 10, 2009, from <http://www.nurse.or.jp/toukei/pdf/toukei13.pdf>
- Japanese Nursing Association (2010). *Basic nursing education in Japan*. Retrieved March 10, 2010, from <http://www.nurse.or.jp/jna/english/nursing/education.html#education>
-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Nursing and Social work. *Journal of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Nursing and Social work*. Retrieved September 20, 2009, from <http://kangofukushi.sakura.ne.jp/>
- Japan Society of Disaster Nursing. *Journal of Japan Society of Disaster Nursing*. Retrieved September 20, 2009, from <http://www.jsdn.gr.jp/>
- Japan Society of Nursing Research. *Journal of Japan Society of Nursing Research*. Retrieved September 20, 2009, from <http://www.jsnr.jp/>
- Kanagawa, K. (2007, November). *Prospect of community health nursing in aging er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1st Korea-Japan Joint Conference on 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 Kim, H. J. (2007, November). *New vision of community health nursing for aging er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1st Korea-Japan Joint Conference on 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Retrieved September 15, 2009, from <http://www.kahhn.or.kr/>
- Korean Academic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Retrieved September 15, 2009, from <http://www.ksohn.or.kr/>
-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Retrieved September 15, 2009, from <http://www.kchn.or.kr/>

-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Retrieved September 15, 2009, from <http://www.kan.or.kr/>
-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Retrieved September 15, 2009, from <http://www.ksphn.or.kr/index.php>
- Lee, J. Y. (2007, November). *Community health care program on the public health center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1st Korea-Japan Joint Conference on 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 Murashima, S., Matsumoto, T., & Arata, Y. (2010). The board of directors' seminar, Public health nurses who tackle and prevent the health problems of the society: What is their model and how can we educate them? *Journal of Japan Academy of Community of Nursing*, 13(1), 7-17.
- Okamoto, R. (2007). *Community health care program on the public health center in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1st Korea-Japan Joint Conference on 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 Ryu, H. S. (2007). *Home health nursing care and home health care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1st Korea-Japan Joint Conference on 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 Shimanouchi, S. (2007). *Home health nursing care and home health care in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1st Korea-Japan Joint Conference on Community Health Nursing, Seoul.
- Tsuji, T. (2007). Health care issues: Japan's aging society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Japan Journal of Nursing Science*, 4(2), 71-73.